

11월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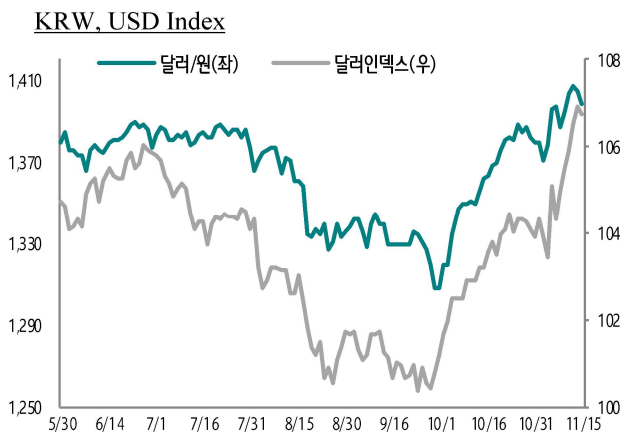
강달러  
이름  
주춤  
,  
환율  
하락  
전망

[USD/KRW]

USD/KRW 예상 : 1390~1400원  
NDF 증가 : 1394.40 (Swap point : -1.25, 1395.65원)

- (금일 전망) 금일 달러/원 환율은 강달러 압력이 완화된 영향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일본 당국자들의 연이은 구두개입에 엔화가 저점에서 반등한 가운데 트럼프 랠리가 주춤하며 강달러 흐름이 완화됨. 여기에 고점 인식이 확산된 측면을 고려 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다만, 견조한 미 소비지표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달러에 지지력을 부여. 또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하단을 지지할 요인. 한편, 장중 예정된 우에다 BOJ 총재 연설에 따른 엔화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 이에 환율은 하락 및 1390원 초중반 등락 예상
- (전일 동향) 15일 달러/원 환율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한 강달러에 2.9원 오른 1408.0원 출발. 당국 개입 경계감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강세 등에 하락 전환 후 6.3원 내린 1398.8원에 주간 거래 증가 기록. 예상 웃돈 미 소매판매 지표에 낙폭 되돌리며 전일대비 2.5원 하락한 1400.0원에 마감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	달러/원 환율 하락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소매판매 호조와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스탠스로 인한 달러의 지지력</li> <li>•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실수요 매수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당국 개입 경계감 속 엔화 강세</li> <li>•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부 되돌림과 강달러 흐름 완화</li> </ul>



자료: 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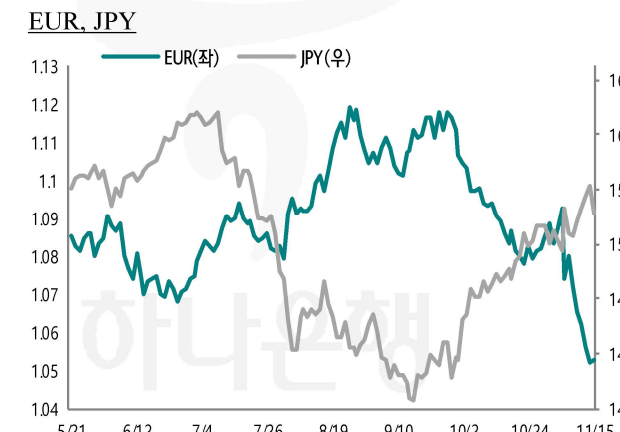
[Global Market]

EUR/USD 예상 : 1.0498~1.0568  
USD/JPY 예상 : 153.69~154.69

- (USD Index)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일본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에 엔화 가치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자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으나 미 소비지표 호조에 약세폭을 일부 반납. 이에 달러인덱스는 0.18 하락한 106.76을 기록
- (EUR) 유로화는 독일 10월 도매물가지수가 0.4%를 기록하며 예상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인 측면이 유로화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유로/달러 환율은 0.0007달러 상승한 1.0528달러로 마감
- (JPY) 엔화는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가토 일본 재무상의 발언에 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 국채금리도 하락하면서 가치가 상승. 달러/엔 환율은 2.00엔 하락한 154.29엔으로 마감

글로벌 통화 동향

구분	증가(전일비)	재정환율(KRW)
USD Index	106.76 (-0.76)	
EUR/USD	1.0528 (+0.0007)	1472.60 (-1.80)
USD/JPY	154.29 (-2.00)	906.57 (+9.89)
USD/CNH	7.2372 (-0.0182)	193.27 (+0.11)



자료: 인포맥스

[Macro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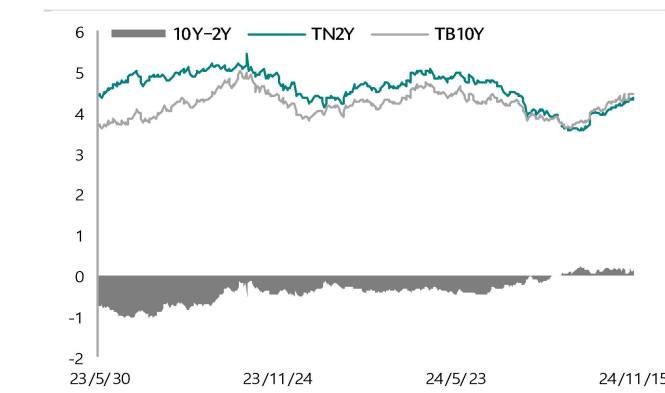
미국채 장단기 Spread(10Y-2Y) : +13.40bp (전일대비 +4.40)

- 글로벌 경제는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 미 10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4% 증가하며 예상치 0.3%를 상회한 가운데 9월 수치는 기존 0.4%에서 0.8%로 상향 수정됨. 미 10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전월비 0.3%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중립금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인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발언.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12월 금리인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 미 국채 수익률은 예상치 상회한 미 소비지표에도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2년물 4.20bp 내린 4.307%, 10년물 0.20bp 오른 4.441% 기록. 뉴욕 증시는 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라 우려에 다우 지수 -0.70bp, S&P -1.32%, 나스닥 -2.24% 마감. 국제 유가는 연준 정책 불확실성과 중국 산업생산 둔화에 하락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

시간	내용	예상	이전
08:50	일본 9월 핵심기계수주(MoM)	1.5%	-1.9%
10:05	BOJ 우에다 총재 연설		
19:00	유로존 9월 무역수지	6.0B	4.6B
00:00	미국 Fed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US Treasury Market



자료: 인포맥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와 관련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